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나스닥, FOMC 소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인텔 여파로 하락 전환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FOMC 이슈를 소화한 가운데 강력한 4분기 GDP 성장을 발표로 상승 출발. 더불어 넷플릭스 효과에 따른 대형 기술주 강세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포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 실적 발표한 테슬라와 인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와 반도체 업종이 하락폭을 확대하자 1.7% 상승하던 나스닥이 하락 전환. 더불어 만기일 여파로 천연가스가 한 때 70% 급등한 점도 변동성 확대 요인(다우 -0.02%, 나스닥 -1.40%, S&P500 -0.54%, 러셀2000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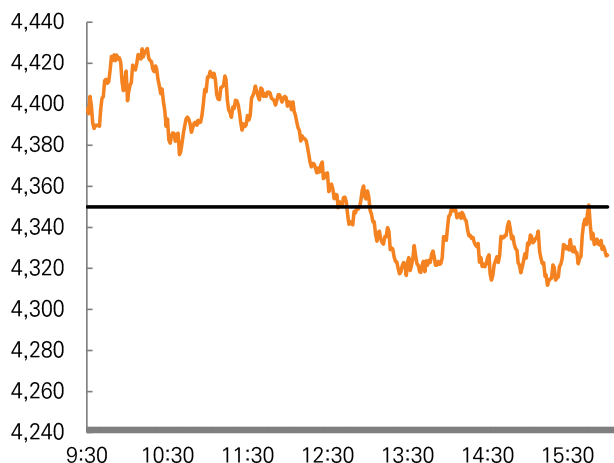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넷플릭스(+7.51%)는 빌 애크먼이 최근 하락을 기회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애플(-0.29%)는 견고한 실적 발표로 시간외 1% 대 상승. 테슬라(-11.55%)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기 트럭 등 일부 제품 출시 지연 소식으로 부진. 여기에 머스크가 올해말까지 완전 자율차 출시를 언급했으나,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올해 성장 둔화 우려로 이어져 하락. 인텔(-7.04%)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2.66% MSCI 신흥 지수 ETF는 1.1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4.8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1%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에서 넷플릭스로 인해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은 저가 매수 유입 기대를 높여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한 수급 공백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장 초반 상승 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8% 급락했으나, 관련 하락을 촉발한 인텔과 램리서치의 실적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반영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판단. 이런 가운데 애플이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 후 여전한 외국인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14.49	-3.50	상해종합	3,394.25	-1.78
KOSDAQ	849.23	-3.73	홍콩항셍	23,807.00	-1.99
DOW	34,160.78	-0.02	베트남	1,470.76	-0.73
NASDAQ	13,352.78	-1.40	유로스톡스 50	4,184.97	+0.49
S&P 500	4,326.51	-0.54	영국	7,554.31	+1.13
캐나다	20,544.11	-0.25	독일	15,524.27	+0.42
일본	26,170.30	-3.11	프랑스	7,023.80	+0.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경제지표, 금리 ②우크라이나 ③반도체, 전기차

미 증시는 FOMC를 소화하는 과정 속 미국 4분기 GDP성장률이 애틀란타 연은이 추정했던 6.5%에 근접한 6.9%로 발표돼 시장 예상(QoQ 5.7%)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상승. 그리고 공격적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으로 급등했던 국채 금리가 7년물 국채입찰에서 강한 수요 흐름이 지속돼 (응찰률 12m 평균 2.28%→2.36배, 간접입찰 12m 평균 58.2%→62.6%) 하락하고, 넷플릭스(+7.51%) 저가 매수 유입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오전장 견고함의 원인

그러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장중에 하방 압력을 줘 상승폭을 축소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장관들이 협상을 통해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중국간의 마찰 확대 가능성이 부각.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루간스크 지역에 포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우려가 커짐. 물론 여전히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주말 프랑스와 러시아 정상회담, 2주후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간의 회담 등이 준비되어 있어 평화로운 해결 가능성은 있어 관련 이슈 확산은 제한

한편, 장 마감 앞두고 천연가스가 70% 넘게 급등하자 시장 일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및 인플레이션 이슈로 해석하며 미 증시의 변화가 확대. 그렇지만, 천연가스 급등은 선물 만기일에 따른 일부 수급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실제 4829계약으로 몇 분만에 급등). 그렇지만 원 월물은 추운 날씨 영향등으로 6~9% 내외 상승을 보이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재 부각되며 국채금리의 하락폭이 축소

이런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규제 강화 우려가 부각된 중국 기술주가 하락폭을 확대하자 장 후반 1.7% 상승하던 나스닥은 하락 전환. 반도체 종목은 인텔(-7.04%)이 1분기 매출은 상향 조정 했으나, 수익이 예상치인 주당 86센트를 하회한 80센트로 전망하자 급락. 여기에 램리서치(-6.93%)가 부진한 매출과 가이던스 발표 후 하락. 특히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경고가 지속된 점이 부담. 이 여파로 반도체 업종 대부분이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8% 하락

테슬라(-11.55%)가 견고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특히 사이버트럭 등의 출시가 연기되자 경쟁업체들에게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점. 머스크가 올해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등 실질적인 문제로 진정된 완전자율주행차 출시는 무리라는 점이 부담. 이 요인으로 올해 테슬라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급락. 이는 뜨겁게 달아 올랐던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 시켜 전기차 종목군이 하락

결국 미 증시는 FOMC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또한 회담 지속 소식에 제한적인 영향을 준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업종의 하락폭 확대로 장 후반 부진. 다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도 이어져 업종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나온 하루. 이런 종목 차별화 장세는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 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주목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기차, 중국 기술주 부진 Vs. 대형 기술주 강세

넷플릭스(+7.51%)는 빌 애크먼이 최근 하락을 기회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이에 힘입어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MS(+1.05%)는 물론 알파벳(-0.18%), 아마존(+0.55%) 등 대형 기술주의 투자심리가 개선돼 동반 상승 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상승 반납. 애플(-0.29%)도 하락 전환한 가운데 시간 외로 예상 하회한 실적으로 1%대 상승. 서비스나우(+9.14%)는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했으며, 소프트웨어 업종의 매도는 과도하다고 발표하자 세일즈포스(+0.82%), 인튜이티브(+1.92%)도 동반 상승. 알리바바(-1.39%), 징둥닷컴(-6.23%), 바이두(-3.08%) 등 중국 기술주는 정부의 규제 강화 소식에 동반 하락

테슬라(-11.55%)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기 트럭 등 일부 제품 출시 지연 소식으로 부진. 여기에 머스크가 올해말까지 완전 자율차 출시를 언급했으나,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올해 성장 둔화 우려로 이어져 하락. 더불어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로 리비안(-10.50%), 루시드(-14.10%) 등 전기차 기업들이 급락한 점도 부담. 인텔(-7.04%)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 램리서치(-6.93%)는 부진한 매출과 가이던스 발표로 하락. AMAT(-4.01%), KLA(-4.94%) 등 여타 반도체 장비 업종도 동반 하락. 반면, 시게이트(+7.65%)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익과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05	대형 가치주 ETF (IVE)	-0.24
에너지섹터 ETF (OIH)	-1.78	중형 가치주 ETF (IWS)	-0.78
소매업체 ETF (XLY)	-2.42	소형 가치주 ETF (IWN)	-2.02
온라인소매 ETF (EBIZ)	-1.77	대형 성장주 ETF (VUG)	-0.95
금융섹터 ETF (XLF)	-0.91	중형 성장주 ETF (IWP)	-1.43
기술섹터 ETF (XLK)	-0.69	소형 성장주 ETF (IWO)	-2.58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03	배당주 ETF (DVY)	+0.25
클라우드 ETF (CLOU)	-0.42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13
미국 리츠 ETF (VNQ)	-1.65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68
주택건설업체 ETF (XHB)	-1.50	미국 국채 ETF (IEF)	+0.42
바이오섹터 ETF (IBB)	-2.01	하이일드 ETF (JNK)	-0.46
헬스케어 ETF (XLV)	+0.26	물가연동채 ETF (TIP)	+0.41
곡물 ETF (DBA)	-1.14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3
반도체 ETF (SMH)	-4.27	모멘텀 ETF (MTUM)	-1.2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3.75	+1.24	+3.59	+18.66
유틸리티	341.25	+0.78	-2.69	-5.55
필수소비재	779.49	+0.58	-1.57	-2.75
소재	520.10	+0.36	-3.94	-8.60
커뮤니케이션	237.62	+0.29	-6.10	-12.14
헬스케어	1,489.36	+0.14	-2.38	-9.61
IT	2,654.50	-0.69	-3.88	-14.13
금융	635.68	-0.92	-1.97	-2.59
산업재	837.31	-0.93	-3.09	-6.40
부동산	283.75	-1.75	-3.51	-12.16
경기소비재	1,369.52	-2.27	-6.19	-15.5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수급 공백 완화에 기대 상승 출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66% MSCI 신흥 지수 ETF는 1.1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04.8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1%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연준이 FOMC를 통해 3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예상과 부합된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움직임을 보이자 하락. 더불어 러시아-중국의 대 서방 공동 대응 발표, 중국 규제 당국의 기술주 규제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 이러한 증시 주변 여건으로 저가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일부 인덱스 펀드의 매물로 인한 수급 공백이 한국 증시 낙폭을 확대

미 증시에서 넷플릭스로 인해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은 저가 매수 유입 기대를 높여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한 수급 공백이 완화된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장 초반 상승 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8% 급락했으나, 관련 하락을 촉발한 인텔과 램리서치의 실적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한편, 미국 4분기 GDP성장률 개선된 점, 미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기는 했으나,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던 반도체, 전기차 업종 중심으로 부진했을 뿐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실적이 견고한 종목군의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애플이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외국인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예상 상회한 6.9%로 발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3분기(2.3%)나 예상치(5.7%)를 크게 상회한 6.9%로 발표. 개인 소비 지출이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상(3.0%)을 상회한 3.3%로 발표되었고 기업 고정투자도 지난분기(1.6%)를 상회한 2.0% 증가로 발표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9만 건)나 예상(26.5만 건)을 하회한 26만 건으로 발표돼 고용시장 개선을 시사. 연속 신청건수는 162.4만 건에서 167.5만 건으로 증가

미국 12월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 발표(mom +3.2%)나 예상(mom -0.5%)을 하회한 전월 대비 0.9% 감소.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0.4% 증가해 예상에 부합

미국 12월 잠정 주택매매는 지난달 발표(mom -2.3%)나 예상(mom +0.6%)을 크게 하회한 전월 대비 3.8% 감소했는데 서부지역이 전월대비 10%나 감소한 데 따른 영향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천연가스, 만기일 여파로 장중 한때 70% 급등

국제유가는 장 초반 우크라이나 문제가 부각되자 한 때 WTI 기준 88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했는데, 천연가스가 러시아 긴장 속 급등하자 대체 수요 기대를 높인 점도 국제유가 장 초반 상승 요인. 그러나 달러 강세 및 관련된 회담이 지속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오후 들어 미 증시가 하락 전환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도 매물 출회 요인. 천연가스는 2월 초 추운 날씨 전망에 따른 수요 증가 이슈로 상승한 가운데 만기일을 맞아 2월물이 수급 불균형으로 한때 70% 넘게 급등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인 점도 특징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장의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통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유입돼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특히 3월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매 회의 때마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여기에 우려와 달리 4분기 미국 GDP성장률이 6.9%로 발표된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여타 신흥국 환율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는 달러 대비 2% 가까이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

국채금리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6.9%로 발표되는 등 견고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자 상승하기도 했고, 특히 단기물의 경우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감. 그러나 장기물의 경우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특히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28배를 상회한 2.36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인 58.2%를 상회한 62.6%를 기록하는 등 강력한 수요가 지속된 점도 장기물 하락 요인. 다만, 장 후반 천연가스가 급등하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낙폭을 축소

금은 파월 의장의 공격적인 발언 여파로 2% 넘게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폭이 확대된 여파로 하락. 곡물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여전히 이어졌으나, 회담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대로 밀 가격이 2% 넘게 하락 했으며, 옥수수도 달러 강세로 하락. 반면, 대두는 강력한 수출 증가 소식에 강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60%, 철근은 1.34%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6.61	-0.85	+1.24	Dollar Index	97.252	+0.80	+1.58
브렌트유	89.34	-0.69	+1.09	EUR/USD	1.1145	-0.85	-1.48
천연가스	6.27	+46.48	+64.78	USD/JPY	115.35	+0.62	+1.09
금	1,795.00	-2.02	-2.70	GBP/USD	1.3380	-0.62	-1.62
은	22.68	-4.75	-8.25	USD/CHF	0.9314	+0.83	+1.58
알루미늄	3,098.50	+0.15	-0.40	AUD/USD	0.7029	-1.21	-2.73
전기동	9,782.00	-1.36	-2.08	USD/CAD	1.2746	+0.60	+1.94
아연	3,630.50	+0.57	-0.52	RUB/USD	0.0128	+1.58	-1.99
옥수수	625.25	-0.28	+2.33	USD/BRL	5.4105	-0.58	-0.49
밀	777.00	-2.26	-1.68	USD/CNH	6.3680	+0.51	+0.33
대두	1,448.25	+0.57	+1.58	USD/KRW	1,202.80	+0.43	+0.87
커피	232.05	-2.87	-4.76	USD/KRW NDF1M	1,204.86	+0.24	+0.9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07	-5.71	+0.26	스페인	0.666	-0.30	+0.50
한국	2.610	+4.80	+5.50	포르투갈	0.589	-0.70	+0.10
일본	0.159	+1.80	+1.20	그리스	1.839	-0.50	+14.90
독일	-0.059	+1.50	-3.50	이탈리아	1.285	-4.10	-1.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